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6월 26일 성삼위일체 후 2주일[연중 13주일] · 다해 · 녹색

제57-25호

신앙 — ‘뒤를 돌아보지 않는’ 나그네 길

(루가 9:51~62)

복음은 종종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어긋나기도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성당에 들어왔는데, 전례에서 들려오는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낮은 명령을 내립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위로하러 찾았는데, 복음의 풀이인 설교는 우리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더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설교자도 사람을 괴롭히려는 마음을 품지 않는데, 하느님께 서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실까요?

다만, 신앙의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기대하는 것 너머를 바라볼 때 열립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한 공간을 향해 몸을 한 번 맡겨보겠노라고 굳게 마음먹을 때, 우리 소원과 위로의 길이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을 결연하게 다지시고’ 새로운 일이 펼쳐질 ‘예루살렘’으로 길을 걷습니다. 권력과 부의 집착이 쌓은 ‘옛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자기 포기과 헌신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시려는 의지입니다. 그 길목마저 쉽지 않습니다. 낮은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스스로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익은 관습과 땅을 지키는 사람의 ‘냉대’마저 받아야 합니다.

사람 마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신을 환대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분개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더 위험해서 믿음과 이념이 다르면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려 듭니다. 제자들처럼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하는 분노가 우리 사회와 종교 곳곳에 내려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태도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곳에서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올 테니까요.

예수님은 심판의 분노를 우회하고, 집착을 버리는 자유

의 길을 걷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여우와 새’가 상징하는 생존 자체가 목적인 동물의 질서를 떠나고, ‘굴과 보금자리’가 뜻하는 안위의 집착에서 벗어난 선택입니다. 신앙의 길은 ‘나를 따르라’는 초대에 응답하여,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쳇바퀴와 자신이 세운 기대에서 실제로 떠나는 연습입니다. 과거의 부채감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풀어주어 자유를 얻는 훈련입니다. 자신과 자녀, 가족과 친구 관계에도 해당합니다.

예수님의 조건이 마음에 걸리나요? 부모 장례도 못 치르고, 작별 인사도 막는 냉혹한 주문은 당시 상황에서 나온 과장입니다. 엘리야도 제자 엘리사에게 작별 인사의 기회는 주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악의 유혹은 선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때 파고들어 번져갑니다. ‘이쯤이야’ 하고 눈 감아서 미끄러지고 망가지는 일이 세상에 속합니다. 당연하고 익숙한 질서, 그리고 과거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 보아서” 신앙의 길이 계속 흔들린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촉구입니다.

신앙의 길은 체함과 신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을 결연하게 떠날 때 시작합니다. 낮은 곳을 여행하며 스스로 낮은 나그네가 되어 새로운 만남에 자신을 여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불편한 길처럼 들리지만, 곧 여행의 새로운 은총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애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중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중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성삼후시기(연중시기) 전례 안내

성삼후시기 전례곡은 C곡입니다. 성가 82장(영광송), 83장(거룩하시다), 84장(하느님의 어린 양)을 따릅니다.

2. 맥추감사주일

다음 주일(7월 3일)은 맥추감사주일로 봉헌합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한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와 정성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3.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평일 아침 성찬례를 오전 6시 30분 화·수·목·금에 성전에서 드립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신앙 생활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 교우 주소록 갱신과 수정

교우 주소록을 갱신하여 수정하고 있으니, 구역과 단체를 중심으로 수정 내용을 종합하여 주시고, 개인이 신청할 경우, 새 주소와 연락처를 이메일 stchris@anglican.kr로, 또는 카카오톡 stchris1966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7월 교회위원회

다음 주일(7월 3일) 오후 12시 45분 성전 교회위원회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 활동단체 소식

◆ 베드로회 모임

서세룡 마가 교우 생일 기념으로 7월 3일(다음주일) 11시 성찬례 후 식사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회원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회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1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쌀보리 2kg 7천원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정민 윤종인(29일) 박경민(30일) 류인경 조용현(7/2일)

◆ 꽃봉헌

김영해 나오미 교우가 생일을 맞이하여 봉헌해 주셨습니다.

◆ 켈트 전시 - 성당 로비와 다목적 홀 ◆

성령강림주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켈트' 작품을 성당 로비와 다목적홀에 전시합니다. 우리 성당의 문해화 사라고 교우의 작품입니다. 켈트는 버려진 조각,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형질을 서로 모으고 엮어서 큰 아름다움과 쓸모를 만드는 멋진 예술 작업입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양과 색깔이 어떻든, 우리 자신의 다채로운 삶을 하느님께 드리도록 초대하십니다. 서로 엮어서 만드는 아름다움에 교회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성당은 이후에도 여러 예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나누려 합니다.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리며 우리 삶이 것처럼 환하게 피어나가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현금

강현모 김용학 김종희 박영수 변금숙 변진선 서남철 송미경 신명식 유윤근 유해상 유희주 윤선구 윤용환 이정희 이난희 이성식 이용해 이종한 이현숙

■ 주정현금

김경아 김삼홍 김요한 박남미 박성준 서정민 선병순 송미경 신희숙 유권열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정희 이광자 이성빈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정명옥 정상임 주창남 주창순

■ 감사현금

송미경(생활) 유윤근(생활) 윤영옥(평일미사) 이순경(생활) 주애다·김영대(모친별세기념) 진규복 최미영(법사) 한부순(건강) 한지원(법사)
〈교회위원회 논의와 결의에 따라, 이번 주일부터 개인별 감사 현금 액수는 주보에 실지 않으며, 확인을 위하여 봉헌한 교우에게 주중에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기타현금(미사 예물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현금

■ 성공회대장학금

윤옥랑

■ 예수사랑현금

윤옥랑 김용학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현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교회를 세우는 신앙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 그리고 여러 성인들

6월은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72년 전 한국전쟁(25일), 35년 전 민주화 운동(10일)만 보더라도 갈등과 억압의 시기를 피와 땀으로 이겨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시간에서 멀어진다고 잊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인을 기억하며 축일을 지킵니다. 6월의 막바지에서도, 성 알반(22일), 세례자 요한(24일), 키릴(27일), 이레네우스(28일), 그리고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29일)의 축일이 연이어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자신을 바친 분들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일에서는 실수도 있고, 의견 충돌로 서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울로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축일을 함께 지키면서 이 모든 노력이 교회와 선교를 세우는 일로 모인다는 사실을 되새깁니다. 두 분 성인은 그리스도교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출신과 배경, 성격과 신앙의 경험의 사뭇 달랐지만, 최초 교회의 성립에서 이 두 분 만큼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성서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베드로 성인은 갈릴래아 어부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실수도 잦았지만,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자,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여전히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사랑의 확신으로 회복해 주셨지요.

바울로 성인은 좋은 교육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으로, 초기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깊은 회심을 경험합니다.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한 성격으로 다른 이들과 충돌도 잦았지만, 복음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이방인들을 안내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평생을 괴롭힌 여러 병을 앓으면서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 차례 투옥당하기도 했습니다. 깊은 사목적 감각과 복음 이해, 그리고 탁월한 문필력으로 교회의 신앙을 격려하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두 성인은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하기도 했지만, 그 신앙의 종착지는 같았습니다. 로마와 교회와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으로서 교회를 돌보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바울로는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는 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로마는 이 순교의 피로써 그리스도교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순교를 지칭하는 희랍어 ‘마티리아’는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후대의 성인 어거스틴의 말대로 “이 두 성인의 가르침과 증언과 순교로, 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나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성인에게 참 고마운 빚을 졌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 임 신 정색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승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새교우

김두식 안소영 김진선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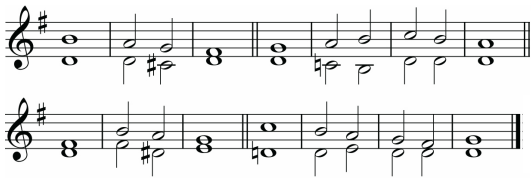
입당성가(선다) ♪ 258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45 다함께
영광송 (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주 하느님,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에 생기를 주시
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 주님을 찾고 사랑
하게 하시며,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 섬기게 하
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열왕상 19:15-16 말은이
시편 시편 16편 다함께



- 1 하느님, 나를 지켜 주소소서.
○ 이 몸은 당신께로 꺾힙니다.
2 주님께 아뢰옵니다.
○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3 이 땅에 있는 거룩하다는 이신들,
○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4 거짓 신을 따르는 이자들!
○ 실컷 고생이나 시키소서.
5 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습니이다.
6 그러므로 이 마음 이 뱃이 기쁘고 즐거워
○ 내 육신마저 걱정 없이 사오리이다.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갈라 5:1, 13-25 말은이
복음환호송(A곡) ✧ 301 / ♪ 55 말은이
복음서(선다) 루가 9:51-62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봉헌성가 ♪ 346장/베드로회 다함께
예물기도 ✧ 256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C곡) ✧ 257 / ♪ 82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성가대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
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
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388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6월 26일)		다음 주일 성찬례 (7월 3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우영현	신환중	우영현	김예중
2독서	김태영	이정숙	김태영	이성빈
대 도	신명식	이성식	신명식	변금숙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	박해웅	이종한
다음 주일 7월 3일	전례독서 신명 8:1-4 시편 119 히브 12:32-40 마태 6:25-34 성 가 입당 352장 봉헌 336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574장			
교 회 청 소	7월 2일 모니카회 2조 김용학 정준희 이정숙 신희숙 정상임 최효운		7월 9일 모니카회 3조 박계자 김예중 주애다 조혜순 김복자	